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일시 (인터넷) 2026. 11. 09.(월) 11:00 (지면) 2026. 11. 10.(화) 조간 배포 2026. 11. 09.(월) 06:00

글로벌 해양정보 디지털 전환의 중심인 '국제수로기구(IHO) 인프라센터' 한국에 문 연다

- 11월 10일, 부산국제금융센터2(BIFC2)에서 개소식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1월 10일(화) 부산국제금융센터2(BIFC2)에서 '국제수로기구(IHO, 이하 IHO) 인프라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해양수산부 주요 관계자를 비롯해 IHO 사무총장, 부산광역시 관계자, IHO 회원국 대표단, 국내외 해양 전문 기관 인사 등 30여 개국에서 약 100명이 참석해 센터의 공식 출범을 축하할 예정이다.

IHO는 해도와 해양정보의 국제표준을 총괄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다. 이번에 문을 여는 IHO 인프라센터는 차세대 디지털 해양정보 국제표준*인 'S-100'의 개발과 검증을 전담하는 IHO 산하 핵심 조직이다.

* 전자해도뿐만 아니라 조석, 해류 등 실시간으로 변하는 다양한 해양정보를 하나의 항해 장비 화면에서 겹쳐 볼 수 있도록 개발한 차세대 디지털 데이터 국제표준

앞으로 IHO 인프라센터는 ▲S-100 표준 개발 및 관리, ▲표준 개발 인프라 운영, ▲항법시스템(ECDIS) 형식승인 지원, ▲S-100 기반 운영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전 세계 해양정보의 S-100 체계 전환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IHO 인프라센터가 문을 열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이번 인프라센터 개소가 전 세계 바다를 한층 더 안전하게 만들고, 국내 해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책임자	과 장	이재영 (051-773-5350)
		담당자	사무관	김태헌 (051-773-5353)
담당 부서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책임자	과 장	한정식 (051-400-4104)
		담당자	사무관	박봉석 (051-400-434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자유이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